

마감때면 북적북적... '알뜰 고객' 늘었다

백화점 식품관 생선 등 30~60% 할인에 판매율 100% 소량 상품 매출 12% 늘어...경기침체속 실속소비 확산

“오후 7시엔 백화점 식품관이 불빈다” 경기침체로 인해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이 실속형으로 변하고 있다. 최근엔 백화점 식품관에서 장을 보거나 대형마트에서 소량포장용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 5일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따르면 폐점 1시간 전인 저녁 7시부터 진행되는 식품관 마감 판매전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판매율이 100%에 달한다. 마감판매전에서 생선 50~60%, 과일 30%

가 할인되기 때문에 저녁 시간대에 식품관을 찾는 단골 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다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광주신세계 백화점도 김밥 등 조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식사 할 수 있는 델리코너(즉석 조리)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1% 증가했다. 조각과일, 샐러드 등 소량포장 판매 상품도 같은 기간 매출이 12%가량 늘었다. 대형마트에서도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즉석조리식품과 소량 판매상품의 매출이 늘

고 있다. 지역 이마트 5개점(광주·상무·계림·봉선·광산점)의 매출자료 분석 결과 지난 2월부터 3월 현재 즉석식품 중 국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3%나 급증했다. 간식용 냉동식품 매출이 전년보다 41.4% 늘었으며 야채 샐러드·조각 과일도 6~12%가량 판매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지역 유통업체들은 경기침체로 필요한 만큼 구매를 하고 할인행사를 이용하는 알뜰 소비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과일, 채소 등 신선식품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싱글족(1인 가구)과 핵가족 가구는 직접 요리를 하기보다는 간편하게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을 구매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고 편리하기 때문에 이들의 구매비

중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유통업체들은 이같은 소비패턴 변화에 따라 싱글족과 핵가족을 겨냥한 마케팅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이마트는 기존 4~6조각 단위로 포장했던 갈치, 삼치 등 생선을 2조각 단위로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깻잎, 상추, 감자 등의 야채도 소량 포장해 가격을 낮춰 판매중이다. 이밖에 화장지 등 생활용품도 싱글족과 핵가족을 겨냥해 소량 묶음 상품 등 기획상품을 준비중이다. 박인철 광주신세계 영업기획팀장은 “마감 판매를 활용하는 알뜰 고객들이 늘고 있고 싱글족들의 구매력도 확대되고 있어 이들을 겨냥한 마케팅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지역 주식거래 큰 폭 증가

2월 8억1421만주...전달보다 53% 늘어

지난 2월 광주·전남지역 상장사들의 주식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가 ‘2012년 2월 광주·전남 지역 주식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지역 지역의 거래량은 8억1421만주로 전달(5억3087만주)보다 53.37%(2억8334만주) 증가했다. 거래대금은 4조 5595억원으로 전달(3조 5643억원)보다 27.92%(995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투자자들이 전체 거래에서 차지한 비중은 거래량이 2.72%로 전달(2.59%)보다 증가했고 거래대금도

2.12%로 전달(2.05%)보다 소폭 늘었다. 광주·전남 지역 거래량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시장에서 우리들생명과학, 우리들제약, 미래산업, 티씨엔코 등 순이고, 코스닥시장에서 서희건설, 소리바다, 테라리소스, 피에스엠씨, 미주제강 등 순이다. 또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하이닉스, OCI, 한화케미칼, LG전자, 우리들생명과학 등 순이고 코스닥시장에서 안철수연구소, 바른손, 아가방컴퍼니, 서희건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신한카드' 분쟁 조정 신청 최다

대부업계는 현대캐피탈

지난해 소비자들 가장 많은 불만을 제기한 신용카드사는 신한카드인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캐피탈업계에서는 현대캐피탈이 불만이 많았다.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분쟁 조정 신청은 신한카드가 447건으로 가장 많았고 KB국민카드(430건), 현대카드(352건), 삼성카드(306건), 롯데카드(240건) 순이었다. 분쟁 조정 신청이란 소비자가 금융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금융감독원에 해당 업체와 분쟁을 조정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다. 분쟁 조정 신청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불만이 컸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캐피탈사 가운데 분쟁 조정 신청은 현대캐피탈이 13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아주캐피탈(58건), 우리파이낸셜(30건), 하나캐피탈(16건) 순이었다. 분쟁 조정 신청 중 소송 제기 또한 현대캐피탈이 17건으로 1위였다. /연합뉴스



집안에 봄을 들여놓으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8층 '린트리브즈' 매장에서는 다양한 꽃 향기를 담은 디퓨저를 선보여 고객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 제품은 유리병에 나무스틱을 넣고 오일을 부어 사용하면 은은한 꽃 향기로 집안분위기 개선에 도움을 준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제공>

새 얼굴

“농산물 판매·금융 수익창출 집중”

나건수 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



“지역주민과 농업인 등 고객들이 행복한 NH농협은행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지난 2일 취임한 나건수(54) NH농협은행 광주영업본부장은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금융사업에서 수익창출이 필수적”이라며 “도농 은행으로서 지역농협과 농업인에 대한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사회와 고객중심의 조직개편을 통해 타 금융기관을

선도하는 ‘리딩뱅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나건수 출신인 나 본부장은 광주상고와 한국방송통신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지난 1977년 농협에 입사해 농협중앙회 서울 독산북 지점장, 서울지도경제부 부본부장, 영업감사부 전산감사국장 등을 역임했다. /송기동기자 song@

광주·전남 13개 농수산물식품업체 아시아 최대 동경 식품박람회 참가

광주·전남 농수산물 가공 13개 업체가 한국식품의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 동경에서 열리는 ‘2012 동경 식품박람회(Foodex Japan 2012)’에 6일부터 9일까지 참가한다. 5일 aT광주전남지사(지사장 성창현)에 따르면 올해로 37회째인 이번 박람회는 60개국 2400여 업체가 참가

전남지역에서는 인조이내추얼(마늘 조제품), 대나무건강나라(맛있차), 한성푸드(유자차), 보혜양조(복분자주 및 소주), 글로리아 수산(건해삼·건전복), 엔에스트레이딩(홍합·바지락), 해청정(다시마 국수·다시마), 도올 F&B(유기농 스낵과 건강과자), 다미안(차류) 등 9개 업체가 참가한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aT와 MOU가 체결된 일본 제일의 유통업체 이온(AEON), 제2위 유통체인 유니(YUNY) 등을 초청, 한국관내 상주 상담실을 운영 실질적인 수출성과를 도출할 계획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외제차 수리비 내린다

벤츠·BMW·아우디 등 부품가 인하

주요 외제차의 수리비가 내린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가 작년 하반기에 벤츠, BMW에 이어 아우디와도 부품 가격을 내리는 데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는 부품 값이 기존보다 19%, BMW는 5%, 아우디는 10% 인하됐다. 시간당 5만원대였던 외제차 공임이 4만원대 초반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삼성화재가 업계 1위로서 주요 외제차 딜러들과 부품 가격 인하에 합의함으로써 동부화재, 현대해상, LIG 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도 가격 인하안을 일부 적용하기 시작했다. 현대해상과 동부화재는 최근 벤츠 딜러와 부품 값을 삼성화재와 비슷하게 내리는데 합의했고 BMW와 아우

디와는 상반기 내 협상을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손해보험사들이 외제차 수리비 인하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100만대에 육박하는 외제차가 사고시 보상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기 때문이다. 부르는 게 값인 외제차 부품은 골칫덩이였다. 국산차 운전자도 외제차와 충돌했을 때 고액을 부담해야 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외제차 평균 수리비는 1456만원으로 국산차(275만원)의 5.3배에 달했다. 외제차 수리비가 내려감으로써 최근 자동차보험료 2% 초반대 인하를 발표한 손보업계로서는 적자 폭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민원 많은 온라인 쇼핑몰 공개

공정위-네이버 정보 공유

인터넷포털인 네이버(NHN)와 공정거래위원회 사이에 전자상거래 사이트의 정보를 공유하는 핫라인이 개설되고, 민원이 많은 쇼핑몰의 명단이 공개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피해가 우려되는 사이트 발견시 국내 검색광고 서비스의 70%를 점유하는 네이버에 검색광고 노출 차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추가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NHN은 광고등록심사 또는 감시 중 발견된 사기사이트와 소비자피해 유발 쇼핑몰 정보를 핫라인을 통해 공정위에 제공하고, 필요하면 공정위의 조처를 요청할 수 있다. 핫라인을 통해 정보공유가 가능한 부분은 ▲경찰 입건 또는 수사 진행 중인 쇼핑몰 ▲수사 개시 전이지만 사기행위가 있는 쇼핑몰 ▲배송지연 등 민원다발 쇼핑몰 ▲연락처 등 인적사항 확보가 어려운 쇼핑몰 ▲상표법 위반 등 위조상품 판매 쇼핑몰 ▲허위광고 등이다. /연합뉴스

적은 투자로 큰 효과에 크게 감탄하실 것입니다.

썩지않고 강하며 수명이 영구적인 **스텐레스 Extrong**못으로 시공하신 목조건축물의 구조물 데크 사이딩 등 금속기와 **방부목**의 조정시설물 해양시설물 등 등은 수십년 수백년 후 까지 안전하고 튼튼하게 귀하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과 행복과 재산을 확실하게 보호하여 드립니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 208-8 (주)두남금속공업
Tel(031)985-3003 Fax(031)985-3004
www.doonammetal.co.kr

木造建築物의 不老長生 못

태양광, 태양열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이제 **전기세, 난방비 걱정**은 평생 끝!! 우리집 **에너지는 내가 만들어 쓴다!**

신속 계획중인 고객님께는 더 많은 혜택을 드립니다!

겨울엔 난방! 여름엔 에어컨! **수도물! 도 태양열로~**

발전할 시작하면 난방이 무료당장으로 회전합니다.

주택용 태양광 3KW, 태양열 10KW, 태양열 10KW

설치전문업체가 국내 최저의 가격으로 최고효율의 태양광, 태양열을 설치할 절호의 기회를 드립니다.

태양광발전(주택용) 설치 후 효과 (월 350kwh 생산 기준)

기준청구요금(사용전력량 : kwh)	설치시 청구요금	절감요금
5만원(약 321kwh)일때	약 1,130원	48,870원
10만원(약 454kwh)일때	약 8,020원	92,270원
15만원(약 531kwh)일때	약 18,380원	131,810원
20만원(약 597kwh)일때	약 31,010원	169,510원
25만원(약 662kwh)일때	약 47,440원	202,640원
30만원(약 728kwh)일때	약 66,850원	233,150원

주택용 태양광 한전 연계형 계통설비 (3kw이하~10kw이하)설치계통합니다.

최장 36개월 분할상환 가능

어떠한 궁금점이라도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NAVER** 강남산업 검색

상담문의 **1588-4208** 010-3624-5399 010-4764-0531

법인등록번호 : 409-96-22826 (주)강남산업 KANGNAM INDUSTRY